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. 11. 27.(금)	**사진 · 영상**	사진(O), 영상(X)
보도일자	2026년 11월 27일(금)부터		
제 공	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	**손인수**	☎ 044-300-7140

[2027 본예산안 심사]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,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 전 학년 확대 앞두고 준비 상황 점검

–27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서 확대 근거와 운영계획 점검… 1억 5,618만원 규모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 제출 요구–

–인천 등 타 시도 우수사례 검토 및 학생·학부모·교원 대상 연수·홍보 강화 당부–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(새롬동, 더불어민주당)은 27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,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를 앞두고 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.

관계회복 숙려제도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. 손 위원장은 지원 실적이 지난해 7건, 올해 10월 말 기준 15건인 점을 짚으며, 올해 초등 1~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제도를 내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물었다.

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은 교육공동체가 합의해 제도를 이용한 경우 전

담기구 심의에 이르기 전에 학교 안에서 사안을 해결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. 이어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.

손 위원장은 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, 사업설명서에 1억 5,618만 2천원을 민간위탁비로 신규 편성했는데 실제로 민간위탁이 맞는지 물었다. 이어 세부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제시하면 예산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.

이 본부장은 해당 사업을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, 사업설명서에 민간위탁으로 잘못 표기한 데 대해 사과했다. 이어 내년에 약 290건을 지원할 계획으로, 용역비의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.

손인수 위원장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첫해인 만큼, 인천의 '디딤돌 프로그램' 등 타 시도교육청의 우수 운영사례를 면밀히 살펴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.

끝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'사건은폐'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학생과 학부모, 교원에 대한 연수와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.